

Centre Pompidou
Hanwha

PRESS KIT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2026.06.04 – 10.04

퐁피두센터 한화

CONTENTS

1. 보도자료
 2. 전시 소개
 3. 전시 섹션 소개
 4. 주요 작품 소개
 5. 주요 작가 소개
 6. 전시 연계 프로그램
 7. 관람안내
-

■보도자료

퐁피두센터 한화, '큐비즘'으로 문 연다...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개최

- 모던아트 출발점 된 큐비즘 통해 미술관의 새로운 시작 상징
- 퐁피두센터 소장품 중심으로 큐비즘의 형성과 확산, 변주를 조망하는 대규모 기획전
- 'KOREA FOCUS' 특별 섹션 통해 한국 근현대미술과의 접점도 함께 소개

퐁피두센터 한화는 미술관 첫 개관전으로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을 오는 6월 4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파리 퐁피두센터 소장품을 중심으로 큐비즘이 태동한 1907년경부터 192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전개 과정을 폭넓게 조망하며, 20세기 미술의 전환점이 된 큐비즘의 의미를 오늘의 시각으로 새롭게 살펴본다.

개관전 '큐비스트'...20세기 현대미술 전환점 조명

이번 개관전은 모던아트의 새로운 시작을 연 큐비즘을 조명함으로써, 퐁피두센터 한화의 출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다. 큐비즘은 사물을 한눈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리지 않고, 여러 시점에서 본 대상을 하나의 화면에 재구성하며 산업화와 도시화로 변화한 근대인의 새로운 시각 경험을 담아낸 미술 운동이다. 한국과 프랑스의 공동 큐레이터십을 바탕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총 54명의 작가, 112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큐비즘을 단일한 양식이 아닌 다양한 지역과 그룹, 매체의 실험이 교차하며 전개된 국제적 예술운동으로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폭넓게 소개되지 않았던 큐비즘의 다양한 흐름을 함께 다룬다. 피카소와 브라크를 중심으로 한 초기 실험뿐 아니라, 색채와 리듬을 중심으로 한 오르픽 큐비즘, 대중 전시와 이론을 통해 확산된 살롱 큐비즘, 전쟁 이후 변화한 큐비즘의 양상까지 폭넓게 소개한다. 관람객은 큐비즘을 특정 작가나 회화 양식에 한정하지 않고, 시대 변화와 예술가들의 다양한 문제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분화하고 확장된 역동적인 흐름으로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회화뿐 아니라 조각, 드로잉, 디자인, 아카이브 자료 등을 함께 구성함으로써 큐비즘이 단순한 회화 양식을 넘어 동시대 문화 전반의 감각 체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다층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소니아 들로네, 나탈리아 곤차로바, 알베르 글레이즈, 장 메첵제 등 국내 관객에게 비교적 낯설었던 작가들의 작업을 포함해, 큐비즘의 국제적 확산과 변주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는 총 9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세잔의 영향 아래 시작된 초기 실험에서 출발해, 분석적 큐비즘, 오르픽 큐비즘, 살롱 큐비즘, 전쟁 이후의 변형과 1920년대 이후의 양식적 변주까지를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조망한다. 이를 통해 큐비즘이 단순히 형태를 해체한 미술사조가 아니라, 근대 이후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킨 시각적 혁명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2전시실 메자닌 공간에 마련되는 특별 섹션 'KOREA FOCUS: 모던 아방가르드를 향한 꿈의 지도'는 이번 전시의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다. 이 섹션은 20세기 전반 한국 근대 예술 형성 과정에서 파리가 지녔던 상징적·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큐비즘 이후의 현대적 시각이 한국 근현대미술에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변주되었는지를 살펴본다. 김환기, 유영국, 박래현, 이수억 등 한국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 서구 아방가르드가 한국적 현실과 감각 속에서 새롭게 번역된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로비 조각 '대형 말'부터 정원까지...예술·건축 결합된 공간 경험

퐁피두센터 한화는 전시 관람을 넘어 예술과 건축, 휴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된다. 대표소와 뮤지엄숍이 위치한 지층(GF) 로비에 들어서면, 프랑스 퐁피두센터 소장품인 레몽 뒤상-비용의 청동 조각 '대형 말(The Large Horse)'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큐비즘 조각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 작품은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과도 긴밀하게 연결되며, 관람객이 전시장에 들어서기 전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작품이자 전시 경험의 출발점이 된다.

1층에는 오디토리움과 스튜디오, 멀티스테이션 등 교육, 강연 등 프로그램 공간이 조성된다. 통창을 따라 배치된 카페에서는 야외 정원 '아우돌프 가든'을 조망할 수 있어 자연과 예술, 건축이 어우러진 공간 경험을 제공한다.

2층과 3층에는 두 개의 대형 전시실이 들어선다. 제1전시실은 층고 7m의 더블 하이트 공간으로 퐁피두센터 소장품 전시가 펼쳐지며, 제2전시실은 메자닌을 갖춘 복층 구조로 개관전 이후에는 한화문화재단이 기획하는 동시대 전시를 선보일 예정이다. 4층에는 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옥상 공간과 레스토랑이 마련된다.

강연·큐레이터 토크 등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시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6월에는 김영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큐비즘과 한국 현대 미술'을 주제로, 우정아 포스텍 교수가 '큐비즘의 확장: 해체된 시각, 움직이는 세계'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7월에는 이번 전시를 기획한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크리스티앙 브리앙 수석 큐레이터와 퐁피두센터 한화 조주현 수석 큐레이터, 서지은 책임 큐레이터가 참여하는 큐레이터 토크가 예정되어 있다.

교육 프로그램 역시 폭넓게 운영된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파리 퐁피두센터의 현지 교육팀과 논의하며 개발한 프로그램을 한국 관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선보일 계획이다. 도슨트, 워크숍, 공연, 키즈 프로그램 등 영유아부터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과 관객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이 전시를 보다 깊이 있고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퐁피두센터 한화는 이번 개관전을 시작으로, 퐁피두센터의 혁신적인 예술 정신을 한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풀어내며, 서울의 새로운 문화예술 랜드마크이자 열린 예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계획이다.

■ 전시 개요

전시명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The Cubists : Inventing Modern Vision
전시 기간	2026.06.04 – 2026.10.04
전시 장소	퐁피두센터 한화 제 1전시실, 제 2전시실
전시 작가 및 작품	퐁피두 컬렉션: 파블로 피카소, 조르주 브라크, 페르낭 레제, 후안 그리스, 로베르 들로네 등 큐비즘 작가 43인, 작품 91점 코리아 포커스: 김환기, 유영국, 박래현, 이수억, 함대정 등 한국근현대작가 11인, 작품 21점
관람료	성인 기준 28,000원 (퐁피두센터 한화 홈페이지에서 예약)
주최	한화문화재단
공동주관	퐁피두센터 한화, 퐁피두센터 파리
퐁피두 컬렉션 기획	크리스티앙 브리앙 (퐁피두센터 국립현대미술관 근대 컬렉션 총괄)
코리아 포커스 기획	조주현 (퐁피두센터 한화 수석 큐레이터)
퐁피두 컬렉션 협력기획	서지은 (퐁피두센터 한화 책임 큐레이터)

■ 전시 소개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

퐁피두센터 한화의 개관전 《큐비스트: 시각의 혁신가들》은 한화문화재단과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파트너십 아래 선보이는 첫 번째 프로젝트로, 큐비즘이 탄생한 도시 파리를 중심으로 1907년부터 1927년까지 전개된 흐름을 폭넓게 조망한다. 전시는 퐁피두센터 소장품으로 구성된 여덟 개의 섹션과, 한국적 맥락과 공명하는 지점을 살피는 하나의 특별 섹션으로 이루어지며, 큐비즘이 어떻게 등장하고 확산했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본다. 재현의 규범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큐비즘은 20세기 미술 전반에 깊은 영향을 남긴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큐비즘은 프랑스 출신의 조르주 브라크와 파리에 정착한 스페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 두 젊은 예술가에게서 출발한다. 이들은 다양한 영향을 흡수하는 동시에 전통적 재현의 규범을 해체하고, 기하화와 추상을 통해 새로운 시각적·개념적 언어를 구축했다. 원근법은 투명한 무채색의 선형 격자로 대체되었으며, 양감과 모티프는 납작한 다면의 평면으로 분해되어 대상을 암시하는 형식으로 재구성되었다. 이후 파리에 거주하던 스페인 작가 후안 그리스 역시 다니엘-헨리 칸바일러의 지원 아래 이 탐구에 합류하며, 그 전개를 한층 심화시켰다.

처음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전개되었던 이들의 급진적인 실험은 곧 로베르 들로네, 알베르 클레이즈, 페르낭 레제 등 다른 그룹에 속한 예술가들에게 확산되었고, 파리의 살롱 전시를 통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큐비즘은 창시자들의 틀을 넘어 국제적인 예술 운동으로 자리 잡았다. 1912년, 시인이자 비평가 기욤 아폴리네르는 '큐비즘의 분화'를 언급하며 그 내부의 다양한 경향을 구분했다. 이후 큐비즘은 색채와 리듬을 강조한 오르피즘 등으로 전개되며 변화했고, 때로는 다시 대상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했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은 예술가들을 흩어놓고 살롱 전시를 중단시키며 이러한 집단적 흐름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지만, 앙리 로랑스와 자크 립시츠의 작품에서 보이듯 조각 분야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전쟁 이후 큐비즘은 브라크와 피카소를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이 수용하는 하나의 양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1920년대에는 아방가르드 영화 등 다양한 매체로 그 영향이 확장되었다.

특별 섹션 'KOREA FOCUS'에서는 20세기 전반 한국 근대 예술 형성 과정에서 파리가 지녔던 상징적·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큐비즘과 1920년대 이후 한국의 미술, 문학,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 간의 교차점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큐비즘 이후 전개된 아방가르드 운동이 한국 사회 속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조망한다.

■ 전시 섹션 소개

섹션 1. 새로운 언어의 탄생: 큐비즘의 시작 1907-1908

큐비즘은 20세기 미술의 시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새로운 조형 언어였다. 그 출발점에는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미술, 그리고 폴 세잔의 회화가 있었다. 1907년 파리 트로카데로 민족지학 박물관에서 비서구 미술을 접한 파블로 피카소는 '아비뇰의 처녀들'을 통해 인체와 공간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해체했다. 조르주 브라크 역시 세잔의 영향을 바탕으로 사물을 기하학적 구조로 환원하는 실험을 이어갔다. 1908년 비평가 루이 보셀이 브라크의 작품을 두고 "큐브"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큐비즘은 새로운 미술 운동으로 이름을 얻게 되었다.

섹션 2. 형태와 공간의 해체: 분석적 큐비즘 1909-1911

1909년부터 1911년 사이 피카소와 브라크는 큐비즘의 가장 급진적인 단계로 평가되는 '분석적 큐비즘'을 발전시켰다. 두 작가는 대상을 하나의 시점에서 재현하는 대신, 여러 방향에서 바라본 형태와 공간을 해체하고 재구성했다. 갈색과 회색 계열의 제한된 색채, 파편화된 형태, 전경과 배경의 모호한 경계는 대상의 외형보다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에 집중하게 한다. 이 시기 큐비즘은 회화가 현실을 모방하는 장르가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구성하는 사고의 방식임을 보여주었다.

섹션 3. 대중과 마주하다: 살롱 큐비즘 1910-1913

큐비즘은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업실을 넘어 파리의 주요 살롱 전시를 통해 대중과 만났다. 살롱 데 앵데팡당, 살롱 도톤, 섹시옹 도르 살롱 등을 중심으로 로베르 들로네, 알베르 클레이즈, 페르낭 레제, 장 메첵제 등은 큐비즘을 보다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미술 운동으로 확장했다. 이들은 대형 회화와 서사적 주제, 고전적 도상, 장식적 구성을 통해 큐비즘의 가능성을 넓혔다. 1912년 선보인 '큐비스트의 집'은 회화, 조각, 실내 장식이 결합된 종합적 예술 실험으로, 큐비즘이 생활 공간과 디자인 영역으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섹션 4. 색채, 리듬, 추상: 오르픽 큐비즘 1912-1914

1912년경 큐비즘 내부에서는 색채와 리듬, 움직임에 주목한 새로운 흐름이 등장했다. 기욤 아폴리네르는 이를 '오르픽 큐비즘'이라 불렀다. 로베르 들로네, 소니아 들로네, 프란티세크 쿠프카, 프랑시스 피카비아 등은 현실의 직접적인 재현에서 벗어나 색채의 진동과 음악적 리듬, 시공간의 움직임을 화면에 담고자 했다. 이들의 작업은 큐비즘이 추상미술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회화가 대상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 시각적 경험 자체를 구성하는 예술임을 보여준다.

섹션 5. 현실의 재구성: 종합적 큐비즘 1912-1914

1912년 피카소와 브라크는 콜라주와 파피에 콜레를 통해 현실의 사물을 회화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신문지, 벽지, 나뭇결무늬 종이, 밧줄 같은 일상적 재료는 작품 속에서 실제 사물이자 재현의 요소로 기능했다. 이러한 실험은 분석적 큐비즘의 복잡한 형태 해체에 현실의 질감과 물질성을 결합하며, 회화의 평면성과 환영성, 사물성과 재현성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질문했다. 후안 그리스가 언급한 '종합적 큐비즘'은 다양한 재료와 색채, 질감의 효과를 통해 큐비즘의 표현 방식을 한층 확장했다.

섹션 6. 이동과 번역: 국경을 넘은 큐비즘 1912-1914

큐비즘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 유럽, 러시아, 미국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파리에 머물던 외국인 예술가들과 수집가, 국제 전시들은 큐비즘이 각 지역의 미술계에 전파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러시아의 입체미래주의 등은 큐비즘의 형태 해체와 강렬한 색채, 속도감, 콜라주적 구성을 결합하며 독자적인 변주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큐비즘은 하나의 고정된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각 문화권의 미술 언어와 만나며 새로운 조형 실험의 기반이 되었다.

섹션 7. 흩어진 궤적들: 전쟁기 큐비즘 1914-1918

제1차 세계대전은 큐비즘의 흐름에도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브라크, 레제, 클레이즈, 메쟁제, 자크 비용 등 여러 작가들이 전쟁에 동원되면서, 큐비즘은 이전과 같은 집단적 흐름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전쟁의 충격과 기계문명에 대한 감각은 큐비즘의 또 다른 변화를 이끌었다. 퐁피두센터 한화 로비에 설치되는 레몽 뒤상-비용의 '대형 말'은 큐비즘적 조형과 기계적 역동성을 결합한 대표작으로, 전쟁 전후 시대의 긴장과 속도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섹션 8. 실험에서 양식으로: 1920년대의 큐비즘 1918-1927

전쟁 이후 큐비즘은 '질서로의 회귀'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았다. 1910년대의 급진적 실험은 보다 절제되고 장식적인 양식으로 전환되었고, 순수주의, 아르데코, 신고전주의적 경향과도 접점을 이루었다. 후안 그리스는 고전적 질서와 구성미를 탐구했고, 아메데 오장팡과 르 코르뷔지에는 기계문명에서 영감을 받은 순수주의를 제시했다. 1920년대에 이르러 큐비즘은 전위적 실험을 넘어, 여러 예술가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조형 언어로 자리 잡았다.

특별 섹션. KOREA FOCUS: 모던 아방가르드를 향한 꿈의 지도

특별 섹션 'KOREA FOCUS' 는 큐비즘이 한국 근현대미술에 남긴 흔적을 조명한다. 한국에 큐비즘을 비롯한 서구 아방가르드 미술이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은 1920~1930년대였다. 김환기와 유영국은 기하학적 추상과 구성주의를 수용하며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친 1950년대에는 함대정, 이수억, 하인두, 한묵, 박영선 등이 대상의 기하학적 분석과 다시점, 색면 분할을 통해 한국적 현실과 정서를 새로운 조형 언어로 표현했다. 박래현을 비롯한 동양화 작가들 역시 전통적 재료와 입체주의적 구성을 결합하며 독자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이 섹션은 큐비즘이 한국 미술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 주요 작품 소개

마리 로랑생 <아폴리네르와 그의 친구들 (두번째 버전)>



1909년, 캔버스에 유채, 130 × 194 cm
Dation, 1973. Centre Pompidou, Paris
© Centre Pompidou, MNAM-CCI/Audrey Laurans/Dist. GrandPalaisRmn

1909년 살롱 데 앵데팡당에 <시골에서의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출품된 이 단체 초상화에는 시인이자 비평가 기욤 아폴리네르를 중심으로 화면 왼쪽에 보이는 미국인 수집가이자 작가 거트루드 스타인과 피카소의 연인 페르낭드 올리비에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 브라크와 피카소의 큐비즘을 참조한 요소들이 곳곳에 산재한 이 작품은 그들의 회화를 연상시키는 어두운 색조를 취하고 있다. 전경에 자신을 그려 넣은 로랑생은 원시주의적 영감과 아라베스크에 대한 선호를 통해 자신의 독창성을 드러낸다

파블로 피카소 <여인의 흉상>



1907년 6-7월, 캔버스에 유채, 66 × 59 cm
Gift of Louise and Michel Leiris, 1984. Centre Pompidou, Paris
© 2026 - Succession Pablo Picasso - SACK(Korea)
© Centre Pompidou, MNAM-CCI/Philippe Migeat/Dist. GrandPalaisRmn

<여인의 흉상>은 같은 시기 제작된 <아비뇽의 처녀들>(뉴욕 현대미술관) 최종 버전에 있는 왼쪽 두 인물과 닮아있다. 작품에서 피카소는 아프리카 미술의 일부 가면에 나타나는 의례적 흉터 문양을 연상시키는 채색 해칭 기법을 사용한다. 강렬한 눈과 기하학적으로 강조된 코를 지닌 이 타원형 얼굴은 피카소가 파리 트로카데로 민족지학박물관을 방문한 후에 받은 원시주의적 영감을 반영한다

조르주 브라크 <레스타크의 고가교>



1908년 초, 파리, 캔버스에 유채, 72.5 × 59 cm
Dation, 1984. Centre Pompidou, Paris
© Georges Braque / ADAGP, Paris - SACK, Seoul, 2026
© Centre Pompidou, MNAM-CCI/Georges Meguerditchian/Dist. GrandPalaisRmn

<레스타크의 고가교>는 같은 풍경을 다룬 앞선 야수주의적 버전 에 이어 제작되었으며, 브라크가 실경을 보며 그린 것이 아닌 파리의 작업실에서 완성한 작품이다. 가까이 당겨진 시점은 화면 구성을 압축하고 정면성을 더욱 강조한다. 평면에 가까운 기하학적 형태는 주황과 황토색 계열로 통일하여 채색한 반면, 하늘과 식물은 보다 표현이 풍부한 방식으로 묘사되었다. 추상에 가까워지는 브라크의 구축적 접근은 분석적 큐비즘의 분절된 공간 구성을 예고한다.



파블로 피카소 <기타 연주자>

1910년 여름, 카다케스, 캔버스에 유채, 100 × 73 cm
Gift of Mr. and Mrs. André Lefèvre, 1952. Centre Pompidou, Paris
© 2026 – Succession Pablo Picasso – SACK(Korea)
© Centre Pompidou, MNAM-CCI/Philippe Migeat/Dist.
GrandPalaisRmn

1910년 여름, 피카소는 프랑스 국경에 인접한 스페인 카다케스에서 두 달을 보내며 정물과 항구 풍경, 그리고 몇 점의 인물화를 그렸다. 그 가운데 <기타 연주자>는 어느 정도 추상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음악가의 유령처럼 희미한 실루엣은 수직선, 수평선, 사선으로 환원되어 있다. 머리는 짧은 원통 형태로 축약되었고, 기타는 화면 중앙에서 악기의 목을 연상시키는 몇 번의 붓질로만 암시된다.



페르낭 레제 <결혼식>

1911-1912년, 캔버스에 유채, 257 × 206 cm
Gift of Alfred Flechtheim, 1937. Centre Pompidou, Paris
© Centre Pompidou, MNAM-CCI/Philippe Migeat/Dist.
GrandPalaisRmn

1912년 살롱 데 앵데팡당에 출품된 페르낭 레제의 <결혼식>은 전통적 원근법을 산산이 깨뜨리는, 그야말로 큐비즘의 선언문과도 같은 작품이다. 첫눈에는 알아보기 어려운 이 작품은 젊은 신랑신부의 주위를 둘러 수직적으로 행진하는 결혼식 행렬을 묘사한다. 레제는 서로 침투하는 듯 보이는 파편화된 형태들 사이에 넓은 색면들을 도입함으로써, 이 시기 브라크와 피카소의 분석적 큐비즘과 구별되는 자신의 특징을 드러낸다.

로베르 들로네 <파리의 도시>



1910-1912년, 캔버스에 유채, 267 × 406 cm
Purchased by the State, 1936; attribution, 1937. Centre Pompidou, Paris
© Centre Pompidou, MNAM-CCI/Georges Meguerditchian/Dist.
GrandPalaisRmn

로베르 들로네의 <파리의 도시>는 '살롱 회화'의 전통과 연결되는 형식으로 인해 1912년 살롱 데 앵데팡당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복합적으로 구성된 이 작품의 중앙에는 우아함의 상징인 고전적 주제, 삼미신이 자리하고 그 주위를 파리 풍경의 여러 요소들이 둘러싼다. 왼쪽의 항구 풍경은 들로네가 흠모했던 (일명 '세관원') 앙리 루소의 회화를 참조한 것이며, 오른쪽에는 작가가 1909년 이래 집중적으로 다뤄온 모티프이자 기술적 근대성의 상징인 에펠탑이 분절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프랑시스 피카비아 <우드니(미국 소녀; 춤)>

1913년, 캔버스에 유채, 290 × 300 cm
Purchase, 1979. Centre Pompidou, Paris
© Centre Pompidou, MNAM-CCI/Audrey Laurans/Dist.
GrandPalaisRmn

<우드니>는 1913년 작가를 뉴욕의 아머리 쇼로 데려가던 배 위에서 '힌두 춤'을 선보였던 무용수 스타시아 나피에르콥스카에 대한 피카비아의 기억을 시각적·감각적으로 암호화해 옮긴 작품이다.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던 이 제목은, 피카비아의 작업에 스며든 공감각 현상을 이론화한 음악학자 장 뒤딘의 이름을 활용한 애너그램일 가능성이 있다. <우드니>는 시각, 청각, 안무 예술의 교차점에 놓여 있다.



조르주 브라크 <기타를 든 여인>

1913년 가을, 소르그, 캔버스에 목탄, 유채, 130 × 73 cm
Gift of Raoul La Roche, 1957. Centre Pompidou, Paris
© Georges Braque / ADAGP, Paris - SACK, Seoul, 2026 © Centre Pompidou, MNAM-CCI/Georges Meguerditchian/Dist.
GrandPalaisRmn

이 그림은 브라크가 1912년경부터 제작하기 시작한 콜라주와 파피에 콜레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구성에서 악보나 신문 조각 등의 서로 다른 요소들은 마치 캔버스 표면에 직접 붙인 것처럼 보인다. 브라크는 비전통적인 기법도 도입했는데, 기타의 나무결 질감은 금속 빛으로 표면에 결을 내어 표현했다. 종합적 큐비즘에서는 종종 스텐실 기법을 활용한 활자가 전형적으로 사용된다. 잘려진 단어들은 언어유희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신문 제목 '르 레베이유'(Le Réveil)가 '르 레브'(Le Rêve)로 바뀌며, 의미가 '각성'에서 '꿈'으로 옮겨 가는 언어 유희를 만들어낸다.



나탈리아 곤차로바 <모자를 쓴 여인>

1913년, 캔버스에 유채, 90 × 66 cm
Gift of Jean Cassou, 1960. Centre Pompidou, Paris
© Centre Pompidou, MNAM-CCI/Audrey Laurans/Dist.
GrandPalaisRmn

이 자화상에서 러시아 화가 나탈리아 곤차로바는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자신의 모습을 선과 곡선이 서로 얽힌 가운데 눈, 입, 깃털, 곱슬머리, 오선지, 글자, 숫자 등 식별 가능한 기호들을 동원해 묘사한다. 형태의 분절과 면 분할은 큐비즘에서 차용했지만, 곡선의 역동성과 강렬한 색채는 오히려 이탈리아 미래주의에 더 가깝다. <모자를 쓴 여인>은 러시아 제국 영토에서 독자적인 운동으로 등장한 입체미래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 작품이다.

후안 그리스 <아침 식사>



1915년 10월, 캔버스에 목탄, 유채, 92 × 73 cm
Purchase, 1947. Centre Pompidou, Paris
© Centre Pompidou, MNAM-CCI/Philippe Migeat/Dist.
GrandPalaisRmn

제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중립국 출신으로 징집 대상이 아니었던 후안 그리스는 프랑스 남부 콜리우르에 머물며 앙리 마티스와 친분을 맺게 되었다. 일상적 사물들, 신문, 장식적 요소들이 서로 맞물리는 이 정물화는 마티스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리스의 작품에서는 드물게 화면 뒤쪽에 보이는 사각형의 푸른 하늘은 선배인 마티스의 <실내> 연작을 연상시키며, 실내와 실외 공간 사이에 대화를 만들어낸다.

파블로 피카소 <'메르퀴르' 발레 무대 막>



1924년, 파리, 캔버스에 아교 물감, 392 × 501 cm
Purchase, 1955. Centre Pompidou, Paris
© 2026 - Succession Pablo Picasso - SACK (Korea) © Centre Pompidou, MNAM-CCI/Jean-François Tomasian/Dist.
GrandPalaisRmn

1924년 피카소는 몽마르트르 인근 라 시칼 극장에서 열린 '파리의 저녁' 공연 시리즈를 위한 무대 막 제작을 의뢰받았다. 뚜렷한 선 드로잉에 대한 선호와 코메디아 텔라르테의 아르르캥과 피에로 같은 전형적인 인물 유형을 참조한 이 작품에서, 그는 신고전주의와 큐비즘적 해체를 결합하고 종합해낸다. 채색된 부분은 인물과 사물의 윤곽선에서 분리되어 있으며, 파편화와 콜라주 효과를 자아내는 이러한 선과 색의 역동적인 분리는 종합적 큐비즘에서 직접 파생되었다. 무대 막 하단에는 악보 위에 놓인 만돌린이 있는데, 이는 악기를 소재로 한 피카소의 큐비즘 시기 정물화를 연상시킨다.

레몽 뒤상-비용, <대형 말>



1914년/1976년, 청동에 검정 피막, 스위스 주조소 주조(파리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용), ed. 4/8, 150 × 97 × 153 cm
Purchase, 1976. Centre Pompidou, Paris
© Centre Pompidou, MNAM-CCI/Philippe Migeat/Dist.
GrandPalaisRmn

처음에 기마상을 구상했던 레몽 뒤상-비용은 곧 기수와 말을 결합하여 전방으로 기울어진 단일한 형상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시도에서 그는 조각의 다양한 양감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기계적 형태에서 영감을 끌어오며 미래주의적 미학에 한층 가까이 다가갔다. 뒤상-비용은 <말>을 확대 제작하기 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오랜 세월이 지나 그의 동생 마르셀 뒤상이 여기 소개된 확대본 제작을 주도했다. 오늘날 이 작품은 20세기 조각을 대표하는 걸작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이수역 <6.25 동란>

1954년, 캔버스에 유채, 96 x 160 cm, 가나문화재단 소장



<6·25 동란>은 이수역이 종군화가로 직접 목격한 전쟁의 참상을 대형 화폭에 담은 작품으로, 사실주의적 기록성과 큐비즘적 조형 논리가 결합된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도쿄 제국미술학교에서 서구 모더니즘을 접한 그는 큐비즘을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극한 현실을 표현하기 위한 조형적 방법으로 활용했다. 화면에서는 전통적 원근법이 약화된 채 전경과 후경이 하나의 평면으로 압축되고, 피난민 행렬이 화면 전체를 밀도 높게 채우며 집단적 긴장감을 형성한다. 인물들은 단순화된 면과 선으로 처리되어 서로 겹치고 뒤엉킨 하나의 군상을 이루며, 전쟁이 남긴 집단적 고통과 혼란을 강조한다. 이 작품은 한국 전후 회화에서 전쟁의 비극을 강렬하게 시각화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함대정 <악사>

1950년대 후반, 캔버스에 유채, 81 x 65 cm, 가나문화재단 소장



<악사>는 화풍상 함대정이 1958년 파리 체류 시기에 제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 일본에서 아방가르드 미술을 접한 그는 후원자의 도움으로 파리로 건너가 콩트레스카르프 광장 인근 다락방에 머물며 창작에 몰두했다. 작품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인물은 수많은 선과 면으로 분절되어 있으며, 인물과 배경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서로 교차하고 침투해 화면 전체가 하나의 평면적 구조처럼 인식된다. 거친 붓질과 두터운 마티에르, 예리한 선의 중첩은 형태의 해체와 공간의 긴장을 강화하며, 특정 장면의 재현보다 화면 자체의 구조적 질서를 탐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이 작품은 짧은 파리 체류 기간 동안의 급진적 조형 실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50년대 한국 회화가 구상과 추상의 경계에서 새로운 현대적 언어를 모색하던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래현 <노점>

1956년, 종이에 먹, 색, 267 x 210 cm,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노점>은 박래현이 동양화 재료와 입체주의적 조형 언어를 결합해 도시 서민의 일상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대표작이다.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에서 일본화를 전공한 그는 전통 채색화의 재료와 기법을 유지하면서도, 파블로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단순화하고 화면을 분할하는 실험을 지속했다. 작품에서 인물은 강한 윤곽선과 단순화된 면으로 구성되며, 인물과 배경이 맞물리듯 배치되어 화면 전체에 리듬감과 긴장감을 형성한다. 전통적 소재인 시장 풍경을 현대적 조형 감각으로 재해석한 이 작품은 서구 입체주의가 한국적 생활 세계 속에서 독자적으로 변용된 사례를 보여준다. 이후 한국화가 구상에서 추상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 주요 작가 소개

Marie Laurencin 마리 로랑생 (1883 – 1956)

마리 로랑생은 20세기 초 파리 아방가르드의 중심에서 활동하며 '르 비슈(Le Biche, 암사슴)'라 불린 선구적 여성 화가로, 부드러운 윤곽과 파스텔 색조를 특징으로 하는 독자적인 '로랑생 스타일'을 구축했다. 몽마르트르 '세탁선(Bateau-Lavoir)' 공동체에서 활동하며 큐비즘과 접점을 형성했으나, 보다 유연하고 서정적인 회화 언어를 발전시켰다. 장식미술을 공부한 뒤 파리 전위 예술계에서 피카비아, 브라크, 피카소, 아폴리네르 등과 교류하며 살롱 도톤과 살롱 데 앵데팡당에 작품을 출품했고, 들로네와의 전시와 '큐비스트의 집' 장식 작업, 색시옹 도르 참여 등을 통해 아방가르드와 긴밀히 연결되었다. 이후에도 유럽 각지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독자적인 조형 세계를 확장했다.

Pablo Picasso 파블로 피카소 (1881 – 1973)

파블로 피카소는 20세기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조르주 브라크와 함께 큐비즘을 창안한 인물이다. 1900년대 초 파리에 정착한 그는 '청색 시대'와 '장미 시대'를 거치며 인간의 감정과 삶을 탐구하는 독자적인 회화 세계를 구축했다. 1907년에는 폴 세잔의 작업과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 예술의 영향을 바탕으로 제작한 '아비뇰의 처녀들'은 큐비즘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이 시기 피카소는 브라크와 긴밀히 협력하며 사물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각 언어를 발전시켰다. 이후 그는 콜라주, 릴리프, 파피에 콜레 등 다양한 기법을 실험하며 회화의 경계를 확장했고, 조각과 무대 디자인 등 여러 분야로 작업 영역을 넓혀갔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보다 고전적인 양식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큐비즘을 통해 이룬 성취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Georges Braque 조르주 브라크 (1882 – 1963)

조르주 브라크는 큐비즘의 형성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화가로, 파블로 피카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회화 언어를 공동으로 발전시켰다. 초기에는 야수주의의 강렬한 색채 실험으로 주목받았으나, 1907년 피카소와의 만남 이후 그는 형태와 공간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문제에 집중하게 된다. 특히 1908년 다니엘-헨리 칸바일러의 갤러리에서 열린 개인전은, 사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단순화한 그의 작업이 '큐브'라는 표현으로 언급되며 '큐비즘'이라는 명칭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브라크는 분석적 큐비즘의 전개 과정에서 시점의 분할과 구조적 질서를 정교하게 발전시켰으며, 1912년에는 종이와 다양한 재료를 화면에 결합하는 파피에 콜레 기법을 도입해 회화의 물질성과 표현 범위를 확장했다.

Fernand Léger 페르낭 레제 (1881 – 1955)

페르낭 레제는 큐비즘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발전시킨 프랑스 화가로, 기계적 형태와 도시적 이미지를 회화에 도입한 작가이다. 초기에는 풍경화를 중심으로 작업했으나, 1910년대 초 살롱 데 앵데팡당과 색시옹 도르 전시에 참여하며 큐비즘 전위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그는 사물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대비시키는 실험을 통해 기하학적 구조와 리듬을 강조한 회화 양식을 발전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에는 병사들의 일상을 큐비즘적 시각으로 묘사하며 보다 현실적인 주제와 결합된 새로운 표현 방식을 모색했다. 전쟁 이후 그의 작품에는 기계 부품과 도시 풍경의 단편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산업 사회의 시각적 언어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레제는 회화에 그치지 않고 무대와 의상 디자인, 영화 작업 등으로 활동을 확장하며 역동적이고 현대적인 이미지를 선보였고, 특히 영화 '기계 발레'는 그의 예술 세계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업으로 평가된다.

Robert Delaunay 로베르 들로네 (1885 – 1941)

로베르 들로네는 색채와 리듬을 중심으로 회화를 재구성하며, 큐비즘을 넘어서는 새로운 추상 경향인 '오르피즘'을 형성한 핵심 인물이다. 그의 작업은 형태의 분해보다는 색채의 상호작용과 시각적 진동에 주목하며, 회화에 시간성과 움직임을 도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실험은 신인상주의의 분할주의 기법에서 출발해 점차 강렬한 색채 대비와 원형 구조를 통해 빛과 리듬을 자율적인 조형 요소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특히 에펠탑과 도시 풍경을 반복적으로 다룬 연작에서는 근대 도시의 역동성이 색채의 파동과 구조적 리듬으로 전환되며, 회화가 더 이상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경험 자체를 조직하는 장으로 기능하게 된다. 들로네의 실험은 초기 추상 회화의 전개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으며, 이후 구상적 요소로 부분적으로 회귀하면서도 색채와 리듬 중심의 조형적 탐구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Sonia Delaunay 소니아 들로네 (1885 – 1979)

소니아 들로네는 색채와 리듬을 중심으로 회화와 디자인을 넘나들며 활동한 예술가로, 오르피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수학한 뒤 1906년 파리에 정착한 그는 야수주의를 접하며 색과 빛, 움직임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다. 이후 로베르 들로네와의 협업을 통해 색채의 대비와 동시성을 강조하는 독자적인 시각 언어를 발전시켰고, 시인 블레즈 상드라르와의 협업을 통해 책 장정과 삽화 작업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특히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한 작업과 '동시적' 드레스는 회화의 원리를 일상적 매체로 확장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니아 들로네는 강렬한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를 바탕으로 회화뿐 아니라 패션과 직물 디자인에까지 실험을 이어가며, 예술과 삶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전개했고 이러한 시도는 현대 디자인과 시각문화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Francis Picabia 프랑시스 피카비아 (1879 – 1953)

프랑시스 피카비아는 하나의 양식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동한 전위 예술가로, 큐비즘을 경유해 다다로 나아가는 급진적 전환의 궤적을 보여준다. 그는 인상주의와 신인상주의, 야수주의를 빠르게 통과하며 스타일을 실험적으로 전환했고, 1910년대 초 푸토 그룹을 통해 마르셀 뒤샹, 기욤 아폴리네르와 교류하며 큐비즘의 확장된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 시기 발표된 대형 추상 회화는 형태 해체를 넘어 시각적 체계 자체를 흔드는 시도로 평가된다. 이후 뉴욕과 바르셀로나를 오가며 활동한 그는 잡지 『391』을 중심으로 기계적 이미지와 도상, 언어를 결합한 작업을 선보이며 기존 회화의 전통을 전복했다. 피카비아의 작업은 점차 재현의 문제를 해체하고 예술의 규범 자체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다다 운동의 핵심적인 실천으로 이어졌다.

Natalia Goncharova 나탈리아 곤차로바 (1881 – 1962)

나탈리아 곤차로바는 러시아 민속미술과 이콘, 유럽 모더니즘의 영향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시각 언어를 발전시켰다. 조각을 공부하던 중 미하일 라리오노프를 만나 회화로 전향했으며, 이후 '다이아몬드 잭'과 '당나귀 꼬리' 그룹 활동에 참여했다. 나아가 빛의 광선에서 영감을 받은 사선의 선 다발을 바탕으로 한 레이오니즘의 원칙을 정립했고, 입체미래주의의 주요 작가로 자리했다. 세르게이 다길레프의 의뢰로 발레 오페라 '황금 수탉'의 무대, 의상, 포스터 디자인을 맡으며 작업 영역을 확장했으며, 파리 정착 이후에는 스페인 여성을 주제로 한 회화 연작을 제작하면서 점차 보다 사실적인 양식으로 나아갔다.

Juan Gris 후안 그리스 (1887 – 1927)

후안 그리스는 큐비즘의 조형 언어를 가장 체계적으로 정립한 작가로, 명확한 구조와 논리적 구성에 기반한 회화로 평가된다. 그는 1906년 파리에 정착한 이후 회화에 집중하며 큐비즘에 참여했고, 1912년 살롱 데 앵데팡

당에 출품한 작품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다니엘-헨리 칸바일러의 후원을 바탕으로 브라크, 레제와 함께 큐비즘의 중심 작가로 자리 잡는다. 그리스의 작업은 사물의 분해를 넘어서 화면 전체를 하나의 질서 있는 구조로 조직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절제된 색채와 명료한 형태를 통해 균형과 안정감을 부여한다. 이러한 접근은 큐비즘을 보다 분석적이고 이론적인 체계로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그의 정물화와 인물화는 이 같은 조형 원리가 가장 정제된 형태로 구현된 사례로 평가된다.

Raymond Duchamp-Villon 레몽 뒤상-비용 (1876 – 1918)

레몽 뒤상-비용은 큐비즘을 조각으로 확장하며, 형태와 움직임, 구조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한 작가이다. 의학을 공부하다 조각으로 전향한 그는 독학을 통해 조형 언어를 발전시켰고, 푸토 그룹의 핵심 인물로 활동하며 큐비즘 전위의 입체적 실험을 주도했다. 특히 '큐비스트의 집' 프로젝트는 회화 중심의 큐비즘이 건축과 장식예술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이다. 그의 조각은 단순한 형태 분해를 넘어 기계적 구조와 운동감을 강조하며, 정적인 조각에 시간성과 역동성을 도입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대표작 <말>은 이러한 특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큐비즘과 미래주의적 감각이 결합된 새로운 조형 가능성을 제시한다. 짧은 활동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대 조각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기여를 남겼다.

김환기 Kim Whanki (1913 – 1974)

김환기는 도쿄 일본대학 예술학부에서 수학하며 후지타 츠구하루, 도고 세이지 등 유럽 유학파 작가들을 통해 입체주의와 구성주의 등 서구 모더니즘의 흐름을 접했다. 1937년 창립된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참여하며 기하학적 추상 양식을 본격적으로 탐구했으며, <창>(1940)은 단순한 도형을 활용한 기하학적 구성으로 초기 조형 실험의 성격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광복 후 귀국한 그는 유영국, 이규상과 함께 신사실파를 결성하고 홍익대학교 교수와 학장을 역임하며 한국 현대미술 교육과 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56년 파리로 건너간 이후 자연을 모티프로 한 서정적 추상을 발전시켰으며, 뉴욕 시기의 <전면점화>(全面點畫)연작을 통해 한국적 감수성을 세계적 추상 회화의 언어로 확장한 작가로 평가된다.

이수억 Lee Soo-auck (1918 – 1990)

이수억은 1939년부터 1943년까지 도쿄 제국미술학교 서양화과에서 수학하며 서구 모더니즘을 접했고, 재학 중 일본 창원회 미전에 입선하며 일찍이 주목받았다. 귀국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방부 정훈국 종군화가단에 합류했고, 전쟁 현장에서의 경험은 그의 작업 세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표작 <6·25 동란>(1954)은 피난민 행렬의 혼란과 공포를 담아낸 대형 유화로, 인물의 형태를 단순화하고 공간을 압축한 구성을 통해 집단적 비극의 긴장감을 강조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화면은 사실주의적 기록성과 입체주의적 재구성이 결합된 독특한 조형 언어를 보여준다. 이후 그는 춘천에 정착해 강원도의 자연과 설악산 풍경을 주요 주제로 작업을 이어가며 한국 전후 회화를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함대정 Ham Dae-jung (1920 – 1959)

함대정은 도쿄 중앙대학 재학 중 혼고회화연구소에서 본격적으로 미술을 공부하며 큐비즘을 중심으로 한 모더니즘 회화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해방 후 북한에 머물다 한국전쟁 중 월남해 부산과 대구, 서울을 오가며 작업을 이어갔고, 1953년 대구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하며 작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은 형태의 단순화와 입방체적 재구성, 절제된 황갈색 색조 등 큐비즘의 조형 요소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회화 언어를 발전시킨 것이 특징이다. 1958년 파리로 건너가 현지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나 이듬해 귀국 직후 서른아홉의 나이에 요절했으며, 이후 그는 한국 근대미술에서 비극적 모더니스트로 재조명되고 있다.

■ 전시연계 프로그램

[특별강연] 큐비즘과 한국현대미술

- 일시: 2026. 06. 06 (토) 15:00~16:30
 - 장소: 풍피두센터 한화 오디토리엄
 - 강연자: 김영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

[특별강연] 큐비즘의 확장: 해체된 시각, 움직이는 세계

- 일시: 2026. 06. 17 (수) 19:00~20:30
 - 장소: 풍피두센터 한화 오디토리엄
 - 강연자: 우정아 (포스텍 인문사회학부 교수)
-

[큐레이터 토크]

- 일시: 2026. 7. 2 (목) 15:00 - 17:00
 - 장소: 풍피두센터 한화 오디토리엄
 - 구성:
 - 1부 - 큐비즘 풍피두 컬렉션 (15:00 - 16:00)
패널: 크리스티앙 브리앙(풍피두센터 파리 수석 큐레이터) x 서지은(풍피두센터 한화 책임 큐레이터)
 - 2부 - KOREA FOCUS (16:00 - 17:00)
패널: 조주현(풍피두센터 한화 수석 큐레이터) x 안마노(안그래픽스) & 민구홍(AG랩)
모더레이터: 권행가(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부설 근현대미술연구소 소장)
-

■ 관람안내

관람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목,금,일 10:00 - 18:00 • 수,토(연장운영) 10:00 - 21:00 •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음력) 및 추석 당일
관람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피두센터 한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 http://www.centrepompidou-hanwha.kr 현장 발권은 전시장 혼잡시 대기시간 발생가능
관람요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만19세-64세): 28,000원 • 할인: 어린이 40%, 청소년, 시니어, 예술인패스 소지자 30% 할인 • 무료: 48개월 미만, 장애인 및 동반 1인, 국가유공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 ICOM회원카드 소지자, 풍피두센터 한화 멤버십회원
도슨트 교육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도슨트 : 주중 11시, 2시, 4시 / 주말 11시, 2시 도슨트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시실 내 QR 코드로 오디오가이드(무료) 이용 가능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미술관 입구: 63빌딩 별관 G층)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261번, 5633번, 5634번 이용 시, '63빌딩, 여의도성모병원' 정류장에서 하차 •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 출구 앞 시내버스 5634, 5633, 261번 이용 • 무료셔틀버스: 1 호선 대방역, 5 호선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9 호선 셋강역에서 이용 가능 (평일에 한함)
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789-5550 http://www.centrepompidou-hanwha.kr

홍보 문의

한화문화재단 최인아 차장

010-3263-6201

choiina@hanwha.com